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10월 2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노랫말처럼 또 관용어처럼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들 한다. 그만큼 책읽기에 좋은 절기다. 독서를 통해 마음의 양식을 비축해야 할텐데 불자들은 불서를 읽어 일석이조를 얻어보자. 특히 경전은 바른 삶의 길을 제시하는 지혜의 창고며 공덕이 무한히 클 뿐만 아니라 수행의 한 방편이기 때문이다. 6조 혜능대사는 〈금강경〉에서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라는 구절에서 홀연히 본성을 깨쳤다고 한다. 의욕을 내서 경전을 포함한 불서를 새롭게 만나보자. 〈편집자주〉

경전이 있는 곳에는…

경을 배우는 태도에 다섯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경을 많이 배우려 생각하는 사람, 둘째는 공덕을 많이 행하려는 사람, 셋째는 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 넷째는 남을 위해 경을 설하고자 하는 사람, 다섯째는 윤회를 끊고자하는 사람이다. 〈매의경〉

사람이 아무리 많이 외우고 널리 배운다 하더라도,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문의(文義) 구의(句義)를 또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람이 초목을 많이 져 날라 백 천 집채 이룬다 해도, 애만 썼을 뿐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다. 〈출요경〉

고 기억도 하지 않고 읽지도 않으며, 외우지도 않고, 설하지도 않으며 바르게 사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세에 이와 같은 공덕을 얻게 된다. 〈대품반야경〉

보살은 중생의 말 글 도리를 널리 배워서 다 통달해 의혹함이 없고, 언제나 잊는 일이 없다. 〈대반야경〉

보살은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까닭에 세속의 기예치고 두루 익히지 않는 것이 없다. 소위 문자 산수 인장과 지수화풍(地水火風)의 갖가지 논서에 다 통달하는 것이다. 〈화엄경〉

어디서든지 이경을 설하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쓰거나 이 경전이 있는 곳에는 마땅히 칠보로써 탑을 쌓되 지극히 높고 넓고 장엄하게 꾸밀 것이요, 또다시 사리를 봉안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가운데는 이미 여래의 진신(眞身)이 있는 까닭이니라. 〈법화경〉

선남 선녀들이 반야바라밀을 단지 서사(書寫)해 책으로 만들어 집에서 공양만 하

세상의 온갖 경전과 소(疏) 논(論)을 다 통달하면, 이 때문에 깨달을 때에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 다시는 미혹하지 않게 된다. 이런 지혜를 무애지(無礙智)라 한다. 〈대집경〉

천장(千章)을 된들 뜻을 모르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 한뜻이라도 듣고 행하여 제도됨만 같지 못하다. 한 글구를 알더라도 행하면 도를 얻는다. 〈법구비유경〉

절마다 '절·참선' 수행 11면

지상중계-봉은사 사찰환경 세미나 3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총무원·종회 해인사 사태 중재 나섰다

혜암방장 사임 재고요청 등 후유증 최소화 노력

강원폐강 무효·7직해임등 10개항 결의

해인총림 중진회의

9월 20일 해인사방장 혜암스님의 전격적인 방장 및 원로회의장직 사임으로 해인골프장 건설반대과정에서 빚어진 해인사 내분이 일단수습국면으로 전환했으나 교계는 후유증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앙종회 의장 설정스님이 22일 해인총림 산중수습대책위(위원장 보광)와 원당암 혜암스님을 예방하고 중재에 나서는등 조계종 중진스님들의 대책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있어 조기해결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종단 초유의 방장사임을 공식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이다. 가장 고민스러운곳은 총무원. 방장사임이라는 전례가 없을뿐 아니라 혜암방장은 개혁의 상징적인 원로스님이라는 점. 더구나 이미 원로 서암스님을 불명예 퇴진시킨바있는 전례로 더욱 고민스러워 하고 있다. 또한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9월 18일부터 유럽 순방중에 있어 공식입장마저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무원은 20일 혜창(총무부장) 혜담(호법부장)스님이 황급히 해인사로 내려갔지만 혜암스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와 공식입장은 29일 월주스님 귀국이후에나 정리될것으로 보인다. 총무원 한 관계자는 "혜암스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은상태에서 해인총림대책위를 공식 인정하지 않을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혜암스님의 방장사임 발표직후 해인총림산중중진 43명은 해인총림산중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장스님의 사임을 수락하며 번복시 불신임 결의 △주지이하 7직해임 △이후 주지직인 무효 등 10개항을 결의한바 있다. 또한 수습대책위 일정과 관련 방장선출을 위한 산중 총회는 10월경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향후 총무원과 해인총림대책위간의 관계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법리적으로 볼 때 산중총회에서 공식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방장문제가 재발될수있고 방장이 아닌 해인총림대책위의 주지 해임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해인사 승가대 학인들로서도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해인사 학인들은 "주지 성법스님과 기획실장 무착스님의 종무행정 전횡으로 빚어진 일련의 사태에 따라 이들 스님들의 책임을 물었던것이지 방장스님을 거론하지 않았다"며 방장사임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학인들이 종단의 어른스님을 몰아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해인사 주지 성법스님은 9월 22일 부산 아리랑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지직 사의를 표명한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여법하게 주지직을 수행할것이다"며 "사후대책을 위해 오는 10월3일 대각사에서 용성문도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인총림은 혜암스님이 주석하는 원당암을 비롯 성철스님이 주석했던 백련암과 지족암 홍제암 등을 근거로 한 다수문중이 원융살림을 꾸려가는 도량으로 앞으로 이들 문중간의 화합여부에 따라 해인사의 정상화 여부가 판가름 날것으로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준엽·이윤호기자〉

훈련병 4천5백여명 수계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앞두고 9월 22일 논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4천5백여명이 오계를 받았다. 군불교진흥회가 마련한 이날 법회에서 동학사, 중앙승가대학스님 20여명이 훈련병들의 팔에 연비했다.

첫 불교여성환경 세미나

불자련, 10월 14일 조계종 불교회관서

불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는 여성과 가정을 위한 풀뿌리 환경운동을 전개할 '녹색살림' 발족에 앞서 오는 10월 14일 오후1시 조계종 총무원 불교회관에서 '제1회 불교여성환경세미나'를 개최한다.

환경운동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다는 취지의 이날 세미나에서는 前 춘천MBC PD 박정예씨가 '불교여성과 환경운동'에 대해 발표한다. 또 정경숙(원불교여성회 환경분과위원장) 양재혁(한국불교환경교육원 연구위원) 김향미씨(독일 뮌스터대 석사) 등이 토론에 나선다.

해인골프장 백지화 범국민 대책위 결성

74개 종교·환경·시민단체 동참

60만명 서명…생태관광코스 개발 촉구

해인골프장 건설반대 서명참가자가 60만을 넘어선 가운데 가야산국립공원 해인골프장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됐다. 〈관련기사 4면〉

전국불교운동연합 경불련 등 불교계 15개 단체로 구성된 범불교도대책위를 비롯 경실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정의평화실천목회자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74개 종교·환경·시민단체 대표 및 실무자 2백여명은 9월 23일 서울YMCA 강당에서 결성식을 갖고 △해인골프장 건설의 전면백지화 △환경영향평가제의 재실시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결성선언문에서 "지난 7월18일부터 시작된 백만인 서명운동에 60만명이라는 엄청난 국민이 함께 했다"고 밝히고 "김영삼대통령이 천명한 환경국가 건설은 전국민적인 목소리를 겸허히 수렴하는데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국민대책위는 사법부에 대해서도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취소 처분 취소 결정의 철회를 촉구했다.

범국민대책위는 또 팔만대장경과 가야산 국립공원의 보존을 위해서는 골프장 건설 허가를 취소하고 골프장 예정지를 국가가 매입, 가야산 국립공원 지역에 생태관광코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성대회 참가자들은 결성식이 끝난 후 '민족성지 가야산에 골프장건설 결사반대' '문화유산 지정해놓고 골프장건설 웬말이냐' 등의 구호가 적힌 피킷을 들고 명동성당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데생용 미륵반가상 중·고교에 보냅시다

◇도원스님

◇혜도스님

동참해주신 분 △도원 천태종총무부장: (5구좌) △혜도 한마음선원부산지원장: 남도여중 부산고 경남여고 금성고 금성중 부산중 부산서중 경남여중 한국고등기술학교 선화여상 선화여중 부산동여중 부산공예고 테레사여고 테레사여중 (15구좌) △보선 보광사주지: 금산고 금산여고(2구좌) △선혜 대각사스님: 군자고 송암보육원(2구좌) △종명 의정부 불암사주지: (2구좌) △운담 강화 적선사주지: 산량중고(1구좌) △유병구: 남강중(1구좌) △정한영 한마음선원사무장: 강동초등학교(1구좌) △정경용: (1구좌) △이성현: 용산공고(1구좌) △이동구 현대불교인천지국장: (1구좌) △김선용: (1구좌)

〈9월18일 현재 총 479구좌 접수〉

◇보급기간: 1996년 12월31일까지
◇구좌단위로 참여(1구좌 10만원)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
※ 온라인 계좌=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HALLA 지역환경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 한라

34 HALLA 1962-1996 한라 34周年

人間과 自然이
調和를 이루는
世上을 만들겠습니다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공기 —
漢拏는 人間과 自然이 調和를 이루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소중한 環境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한라는 자연환경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한라의 모든 사업장에 완벽한 공해방지시설을 갖춰
'綠色經營'을 펼치고 있습니다.

HALLA 漢拏 〈信賴와 創造〉

한라중공업 · 만도기계 · 한라건설 · 한라시멘트 · 한라공조 · 한라해운 · 한라자원 · 한라콘크리트 · 한라창업투자 · 캄코 · 마이스터 · 한라정보시스템 · 한라펄프제지 · 한라일렉트로닉스 · 한라산업기술 · 마르코폴로 호텔 · 배달학원